

작업치료 전공 학생들의 연하재활치료 교육 실태, 지식 및 인식도 조사

민경철*, 서상민**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재활의학과 작업치료사

**세명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작업치료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및 실습에서의 연하재활치료 교육 실태, 지식, 인식도 및 준비도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연구방법 : 국내 작업치료과 및 작업치료학과에 재학 중인 졸업 년도 학생(3학년, 4학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프로그램을 통해 수거된 105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연하재활치료 교육 실태, 지식, 연하재활치료 인식도 및 준비도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는 빈도 및 기초 통계 분석, 실습 여부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였고, 학교 및 실습에서의 교육, 지식, 준비도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결과 : 연하재활치료 교과목은 단독 개설된 경우가 많았으며(69.5%), 실습 경험은 79.0%였다. 학교와 실습 모두 연하재활치료 교육 및 지식이 보통 정도였으며 학교에서의 교육 점수가 높았다. 지식 및 임상 준비도는 아동보다 성인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하재활치료에 대한 인식, 지식 및 준비도 모두 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결론 : 본 연구를 통하여 작업치료 전공 학생들의 연하재활치료 교육 및 지식은 보통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성인 연하재활치료 지식 및 준비도가 아동보다 높았다. 작업치료의 임상 전문분야 중 하나인 연하재활치료에 대한 지식 및 준비도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학교, 실습 교육이 필요하며 학교-임상 연계 교육 과정이 요구된다.

주제어 : 교육 실태, 연하재활, 연하재활치료 교육, 인식조사, 작업치료 학생

I. 서론

연하장애는 구강에서 음식을 조작하고 처리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삼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문제를 말한다(Arvedson, 2013; Seo et al., 2020). 연하장애는 영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발생하며, 조산, 발달 장애, 뇌병변 장애, 파킨슨씨 병 등 많은 질환에서 흔하게 동반된다(Arvedson, 2013; Min et al., 2021; Seo et al., 2020). 또한 최근에는 노화로 인한 노인성 연하장애가 발생하거나 치매 환자에게도 연하장애 문제가 나타나는 등 이전 의료가 관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연하재활치료까지 대상자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다(Cha & Jeon, 2012; Min et al., 2021).

작업치료사는 건강보험 급여항목 내 연하장애 재활치료(서-141), 기능적 전기자극치료(사-126)의 의료보험 수가를 단독 사용하여 연하재활치료를 제공하는 국내 연하재활치료 전문가이다(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2017; Seo et al., 2020). 작업치료사는 의료 환경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 성인 및 노인 등 다양한 대상군에게 연하재활 평가, 치료, 교육을 포함한 전반적인 연하재활 중재를 제공한다(Cha & Jeon, 2012; Min & Woo, 2020; Seo et al., 2020). 작업치료사는 연하재활치료 해부생리학 등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평가, 섭식 및 삼킴을 위한 구강운동치료, 삼킴 메뉴버, 전기자극치료 등 다양한 치료법 제공을 통해 연하장애 환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연하기능 증진을 돕는 역할을 한다(Min & Woo, 2020; Seo et al., 2020).

연하재활치료는 다른 작업치료 분야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전문적인 교육 과정이 요구된다. 연하재활치료 교육 과정은 국가에 따라 학부, 대학원 과정 등 다양한 형태로 개설되어 있으며 교과 과정은 전 세계적으로 유사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된다(Ball & Riquelme, 2016; Cocks et al., 2014; Singh et al., 2015). 일반적으로 연하재활치료 교육 과정은 연하 해부학 및 신경해부학, 정상 삼킴 생리학, 구강 안면 근육, 호흡기계, 소화

기계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연하장애 평가, 치료, 관리, 보호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등의 교육뿐 아니라 실습을 통한 현장 학습이 포함된다(Affoo et al., 2020; Ball & Riquelme, 2016; Cocks et al., 2014; Singh et al., 2015). 특히, 미국 청각 및 언어 병리학 위원회(Council on Academic Accreditation in Audiology and Speech-Language Pathology, CAA)는 연하재활치료 대학원 기본 교육 과정으로 정상 연하 과정, 발달,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평가, 중재, 윤리적 행동 및 실천, 근거 중심 접근, 연구, 상담, 다문화, 가족 및 기타 의료 전문가와의 전문적인 행동 실행 등을 제안하였다(Ball & Riquelme, 2016).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박사 과정에 공식적인 연하재활치료 교육 과정은 없으나 졸업생이 미국 언어 청각 협회(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 인증 지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CAA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Ball & Riquelme, 2016). 국내의 경우에도 각 대학 상황에 맞게 연하재활치료 과목을 전공 필수 또는 선택 과목으로 정하여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세계 작업치료사 연맹(World Feder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규정에 따른 실습을 통해 기관에 따라서 연하재활치료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연하재활 치료사의 전문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하재활치료는 학교와 실습에서의 교육을 통한 전문성 습득이 중요하며, 이러한 준비 과정 경험 여부에 따라서 임상에서의 연하재활치료 시행을 위한 잠재적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Affoo et al., 2020).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국, 영국 등에서 학교 및 실습에서의 연하재활치료 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학교마다 교육 과정의 차이가 있었으며 학생들 역시 연하재활치료와 관련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학교와 실습 교육 과정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Ball & Riquelme, 2016; Cocks et al., 2014; Singh et al., 2015). 또한 학생들은 본인들의 연하재활치료 준비도를 아직 충분히 생각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하재활치료 분야의 졸업생들이 동일한 수준의 연하재활치료 지식 및 임상 수준을 보유하지 못함

을 의미할 수 있다(Cocks et al., 2014). 학생들에게는 연하재활치료 교육 및 실습 경험이 연하재활치료 지식, 전문성 및 자신감 향상에 도움을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하재활치료 교육 과정은 중요하다. 따라서 작업치료과 및 작업치료학과에 재학 중인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의 연하재활치료 교육 실태 및 지식수준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작업치료과 및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하재활치료 교육 실태, 지식수준, 인식도 및 준비도 등을 조사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작업치료 전문 분야인 치매 및 정신과 작업치료에 대한 교육 실태, 인식도 및 준비도 확인 등 추후 작업치료 분야에서 일하게 될 예비 작업치료사인 작업치료과 및 작업치료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 과정 개발 및 학생들의 인식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준비하는 추세이다(Go et al., 2021; Hong, 2018; Jung & Yoo, 2021).

Min 등(2021)의 연구에서 지역사회 작업치료사들의 연하재활치료 교육 경험에 대한 단편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국내에서는 연하재활치료 분야의 교육 과정에 대한 확인 및 당사자인 작업치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조사를 진행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작업치료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하재활치료 교육 경험, 지식, 인식도 및 준비도를 확인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추후 작업치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 연하재활치료 교육 과정 개발 및 제공, 신규 작업치료사에게 필요한 연하재활치료 교육 수준 확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2022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 작업치료과 및 작업치료학과에 재학 중인 졸업년도 학생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설문 프로그램(네이버오피스 폼)을 통하여 진행되었다. 응답자는 작업치료학과 교수들을 통한 홍보, 온라인 단체 채팅방으로 설문지 링크를 전송하여 참가하였다. 선정 기준은 설문 참여 시점에 각 학교의 학제에 따른 졸업년도 학생이었다. 연구 참여 시 온라인 설문 프로그램 시작 전 연구 목적을 설명하였으며 참여를 동의한 학생들만 참여하도록 하였다. 전체 60% 이상 답변하지 않은 경우와 응답이 부정확한 3부를 제외한 설문지 105부(응답률 97.2%)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작업치료 전공 학생들의 치매안심센터, 치매 및 정신과 작업치료 교육 과정에 관한 태도, 경험 및 인식을 조사한 사전 연구를 참조하여(Go et al., 2021; Hong, 2018; Jung & Yoo, 2021) 연하재활치료 교육 과정에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하여 제작되었다. 2명의 연구자가 설문지 초안 개발 후 설문지의 문항 난이도와 길이, 타당성, 적합성 등에 대해 국내 작업치료학과 교수 3명의 자문을 거쳐 2차 수정을 하였다. 이후 졸업년도 작업치료학과 학생 5명을 대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한 설명 추가 등 3차 수정 과정을 통한 최종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본 설문지는 연하재활치료와 관련된 학교 및 실습 교육, 지식 수준, 인식도 및 준비도와 관련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 정보 3문항, 연하재활치료 교육 및 실습 실태 8문항, 연하재활치료 교육 경험 11문항, 주관적 지식 11문항, 연하재활치료 교육 인식도 8문항, 연하재활치료 인식도 및 준비도 8문항의 총 49문항이었다. 모든 항목은 5점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응답 항목에 따라서 1점(매우 부족함, 매우 낮음 등)에서 5점(매우 충분함, 매우 높음 등)으로 이루어졌다. 응답자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 설문지의 내적일치도 Cronbach α 는 92.4였다.

3. 분석 방법

설문 결과는 Window SPSS ver. 24 (IBM Corp.)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정보와 교육 실태에 관한 답변은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사용하였다. 학교와 실습 환경에서의 연하재활치료 교육 경험과 지식 차이는 T-test로 확인하였으며, 실습 경험 여부에 따른 인식과 준비도는 실습 경험이 없는 군이 정규분포를 하지 않아 Mann-Whitney U-test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와 실습에서의 연하재활치료 교육과 지식, 준비도의 관계를 Pearson 상관분석으로 확인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의 유의수준은 $p < .05$ 로 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

설문 응답자의 성별은 여자 75명(71.4%), 학제는 4년제 82명(78.1%), 지역은 강원 32명(30.5%)으로 가장 많았다(Table 1).

Table 1. General Status of Respondents (N = 105)

Variable	n (%)
Gender	Female 75 (71.4)
	Male 30 (28.6)
University	3-yr 23 (21.9)
	4-yr 82 (78.1)
Region	Gyeonggi · Incheon 7 (6.7)
	Busan · Ulsan · Gyeongnam 1 (1.0)
	Daegu · Gyeongbuk 27 (25.7)
	Gangwon 32 (30.5)
	Chungcheong 31 (29.5)
	Gwangju · Jeonnam 2 (1.9)
	Jeonbuk 5 (4.8)

The sum of the percentages does not equal 100% because of rounding.

2. 전반적인 연하재활치료 교육 실태

연하재활치료 학교 교육은 단독 개설(69.5%), 3학점(65.8%), 주당 3시간(65.6%)의 비율이 높았다. 단독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경계 작업치료(59.4%) 등 다른 교과목 시간에 연하재활치료 교육 과정을 배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학생들은 연하재활치료 특강을 듣거나(61.0%), 실습 경험(79.0%)이 있었다. 실습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연하재활치료를 관찰하거나(69.9%), 직접 적용한 경험(26.5%)이 있었다(Table 2).

3. 연하재활치료 교육 경험

학교와 실습 환경에서 이루어진 연하재활치료 교육 경험을 분석하였다. 모든 항목에서 평균 3점 이하로 보통 이하 수준이었다. 학교에서의 연하재활치료 교육 경험은 아동 치료(2.89 ± 1.21)가 가장 낮았고, 성인 치료(3.95 ± 0.90)가 가장 높았다. 실습에서의 연하재활치료 교육 경험은 아동 발달(2.79 ± 1.37)이 가장 낮았고, 삼킴 메뉴버(3.46 ± 1.24)가 가장 높았다. 모든 항목에서 실습에서보다 학교에서의 교육 경험이 높았다. 두 그룹 간에서는 해부학, 신경생리학, 성인 평가, 성인 치료, 구강운동치료, 삼킴 메뉴버, 식이변형에서 유의미한 경험의 차이가 있었다(Table 3).

4. 연하재활치료 주관적 지식

학교와 실습 환경에서 이루어진 연하재활치료 지식을 분석하였다. 모든 항목에서 평균 3점 이하의 낮음에서 보통 수준이었다. 학교에서의 지식은 아동 평가(2.73 ± 1.07)가 가장 낮고, 식이 변형(3.56 ± 0.96)이 가장 높았다. 실습에서의 지식은 아동 평가(2.88 ± 1.15)가 가장 낮고, 삼킴 메뉴버(3.51 ± 1.06)가 가장 높았다. 두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Table 4).

Table 2. General Status of Dysphagia Therapy Curriculum and Practice

(N = 105)

Variable	n (%)	
Exclusive opening of dysphagia therapy subject	Yes	73 (69.5)
	No	32 (30.5)
Lecture credits (n = 73)	1 credit	2 (2.7)
	2 credits	23 (31.5)
	3 credits	48 (65.8)
Lecture hours (n = 32)	1 hr/wk	1 (3.1)
	2 hr/wk	10 (31.3)
	3 hr/wk	21 (65.6)
Other subjects dealing with dysphagia therapy (n = 32)	Neurologic OT	19 (59.4)
	Adult OT	5 (15.2)
	Pediatric OT	3 (9.4)
	Exercise therapy/rehabilitation	2 (6.3)
	Activities of daily living	1 (3.1)
	Physical disability OT	1 (3.1)
	Anatomy	1 (3.1)
Special lecture	Yes	64 (61.0)
	No	41 (39.0)
Practice	Yes	83 (79.0)
	No	22 (21.0)
Dysphagia therapy observation during practice (n = 83)	Yes	58 (69.9)
	No	25 (30.1)
Dysphagia therapy application during practice (n = 83)	Yes	22 (26.5)
	No	61 (73.5)

OT = occupational therapy.

Table 3. Dysphagia Education Experience in University and Practice

Variable	University (n = 105)	Practice (n = 83)	t	p-value
Anatomy	3.81 ± 1.11	3.31 ± 1.24	2.92	.004**
Physiology	3.67 ± 1.11	3.08 ± 1.27	3.42	.001**
Pediatric evaluation	2.91 ± 1.15	2.81 ± 1.28	0.59	.554
Pediatric development	2.94 ± 1.18	2.79 ± 1.37	0.83	.407
Pediatric therapy	2.89 ± 1.21	2.83 ± 1.31	0.29	.776
Adult evaluation	3.69 ± 0.96	3.31 ± 1.27	2.31	.022*
Adult therapy	3.95 ± 0.90	3.40 ± 1.25	3.49	.001**
Oral motor therapy	3.81 ± 0.96	3.40 ± 1.29	2.47	.014*
Swallowing maneuver	3.94 ± 0.89	3.46 ± 1.24	3.10	.002*
Electrical stimulation therapy	3.69 ± 1.04	3.44 ± 1.38	1.39	.166
Diet modification	3.83 ± 0.99	3.39 ± 1.23	2.70	.008**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p < 0.05, **p < 0.01.

Table 4. Subjective Knowledge Level in University and Practice

Variable	University (<i>n</i> = 105)	Practice (<i>n</i> = 83)	<i>t</i>	<i>p</i> -value
Anatomy	3.35 ± 0.87	3.32 ± 1.08	0.21	.827
Physiology	3.06 ± 0.92	3.11 ± 1.18	-0.33	.744
Pediatric evaluation	2.73 ± 1.07	2.88 ± 1.15	-0.91	.365
Pediatric development	2.83 ± 1.13	2.92 ± 1.16	-0.52	.601
Pediatric therapy	2.84 ± 1.10	2.94 ± 1.14	-0.62	.535
Adult evaluation	3.39 ± 1.01	3.31 ± 1.10	0.52	.602
Adult therapy	3.50 ± 0.91	3.48 ± 1.14	0.19	.848
Oral motor therapy	3.38 ± 0.96	3.33 ± 1.13	0.31	.759
Swallowing maneuver	3.54 ± 0.89	3.51 ± 1.06	0.21	.831
Electrical stimulation therapy	3.38 ± 0.98	3.39 ± 1.18	-0.07	.940
Diet modification	3.56 ± 0.96	3.38 ± 1.11	0.15	.23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Table 5. Correlation Between Education, Subjective Knowledge Level and Readiness in University and Practice

Variable	UE	UK	PE	PK	PR	AR
UE	1					
UK	.758**	1				
PE	.506**	.598**	1			
PK	.584**	.725**	.845**	1		
PR	.431**	.443**	.494**	.493**	1	
AR	.471**	.481**	.506**	.626**	.585**	1

AR = adult readiness; PE = practice education; PK = practice knowledge; PR = pediatric readiness; UE = university education; UK = university knowledge.

** *p* < 0.01.

5. 연하재활치료 교육, 지식 및 준비도 상관관계

학교 교육과 지식, 실습 교육과 지식, 연하재활치료 준비도 모든 영역에서 중간 이상의 상관을 보였다 (Table 5).

6. 연하재활치료 교육 인식도

연하재활치료 교육 인식도 조사 결과 두 군 모두 실습의 필요성 항목이 가장 높았다. 실습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충분한 교과 시간이 가장 낮았다. 모든 항목은 평균 3~4점에 분포되었으며, 모든 항목에서 실습 경험 이 있는 군의 점수가 높았다. 두 군에서는 실습의 필요

성, 실습이 연하재활치료 지식 증진에 도움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able 6).

7. 연하재활치료 인식도 및 준비도

연하재활치료 인식도 및 준비도 확인 결과 두 군 모두 작업치료에서의 전문분야 점수가 가장 높았다. 실습 경험이 있는 군에서는 아동 연하재활치료 준비도(2.59 ± 1.21)가, 실습 경험 없는 군에서는 연하재활치료 교육 기관에 대한 지식(2.77 ± 0.81)이 가장 낮았다. 아동 연하재활치료 준비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실습 경험이 있는 군의 점수가 높았다. 아동, 성인 연하재활치료 준비도를 제외한 항목에서 두 군 간 유의미한 차이가

Table 6. Dysphagia Education Awareness in University and Practice

Variable	Practice experience		z	p-value
	Yes (n = 83)	No (n = 22)		
Need for independent regular dysphagia therapy curriculum	4.24 ± 0.76	3.95 ± 0.84	-1.50	.133
Sufficiency of dysphagia therapy education at university	3.58 ± 1.11	3.23 ± 0.92	-1.43	.153
Appropriateness of curriculum contents at university	3.63 ± 1.08	3.41 ± 0.85	-1.17	.240
Appropriateness of textbook at university	3.65 ± 1.01	3.36 ± 1.09	-1.11	.268
Appropriateness of curriculum hours at university	3.42 ± 1.15	3.14 ± 1.08	-1.18	.239
Satisfaction of curriculum at university	3.59 ± 1.14	3.36 ± 0.95	-1.10	.270
Need for practice	4.43 ± 0.67	4.09 ± 0.75	-2.05	.041*
Practice help to improve dysphagia therapy knowledge level	3.65 ± 1.22	2.59 ± 1.40	-3.04	.00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p < 0.05.

Table 7. Dysphagia Therapy Awareness and Readiness in University and Practice

Variable	Practice experience		z	p-value
	Yes (n = 83)	No (n = 22)		
Unique task of occupational therapist	4.37 ± 0.81	3.64 ± 0.95	-3.59	.000*
Specialty of occupational therapist	4.47 ± 0.77	3.95 ± 1.00	-2.59	.009*
Familiarity with dysphagia occupational therapy	4.10 ± 0.86	3.55 ± 0.74	-2.71	.007*
Knowing of dysphagia therapy education institution	3.69 ± 1.09	2.77 ± 0.81	-3.44	.001*
Interest in dysphagia therapy	3.90 ± 0.88	3.41 ± 0.96	-2.11	.035*
Plan to work in dysphagia therapy	3.57 ± 0.95	2.95 ± 0.90	-2.45	.014*
Readiness for pediatric dysphagia therapy	2.59 ± 1.21	2.95 ± 1.05	-1.47	.141
Readiness for adult dysphagia therapy	3.22 ± 1.20	3.09 ± 1.11	-0.53	.59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p < 0.05.

있었다(Table 7).

IV. 고찰

연하재활치료 전문가는 최신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가 요구된다(Ball & Riquelme, 2016). 따라서 연하재활치료 교육은 연하재활치료 핵심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 개발을 위해 학교와 실습 과정에서 시작된다(Cocks et al., 2014). 본 연구는 전국 작업치료과 및 작업치료학과에 재학 중인 졸업년도 학생 105명을 대상으로 연하재활치료 교육 경험, 지식, 인식도 및 준비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 연하재활치료 교과목은 단독 개설되어 (69.5%) 3학점(65.8%)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응답자 대부분(79.0%)은 연하재활치료 실습 경험이 있었으며 그 중 연하재활치료를 관찰하거나(69.9%) 직접 적용해 본(26.5%) 경험이 있었다. Singh 등(2015)의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이 된 6개 학교 대부분 3~4학년 때 연하재활치료 학교 교육 및 실습을 제공하였으며, 79.0%는 실습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연하재활치료 교육 제공 시간은 학교에 따라서 이론 교육 4~48시간 또는 12~59시간, 실습 교육 5~30시간 또는 3.5~40시간으로 조사되었는데 (Singh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가장 많이 응답한

주 3시간은 3학점 강의로 환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한 학기 16주 기준 48시간으로 선행 연구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학교 교육 시간과 유사하여 국내에서 충분한 수준의 연하재활치료 이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실습 시간은 확인하지 않아 선행 연구 결과와 직접적인 비교에는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국내 실습 기간은 1~6개월로 시간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정도로 실습 기관에서의 연하장애치료 집중도에 따라서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실습 시간과 비슷하거나 많은 시간이 제공될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를 통해 주요하게 확인된 연하재활치료 교육 실태는 실습 경험이 있는 군이 실습 경험 없는 군에 비해 대부분의 연하재활치료 교육 실태 및 인식도 등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과 성인에 비해서 아동 연하재활치료의 지식 및 준비도가 낮다는 것이었다. 본 연구 결과 교육 관련 항목의 평균 점수는 3점 이하로 보통 수준이었으며 학교에서의 교육 경험이 실습에서 보다 높았다. 학교와 실습 교육 모두 아동 연하재활치료 및 발달 항목이 낮고, 성인 연하재활치료의 경험이 높았으며 실습 경험이 있는 군에서는 삼킴 매뉴얼 항목이 가장 높아 (3.46 ± 1.24) 실습을 통해 실질적인 연하재활치료 교육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Singh 등(2015)의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실습을 받았으나 아동의 25.6%, 성인의 16.1%에서 실습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아동 연하재활치료 교육 경험이 부족하다고 한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특히 학생들은 대부분 실습 기회가 제한적이고 객관적 평가와 관리 교육이 부족하였으며 몇몇 대학은 실습을 전혀 제공하지 않거나 제한적이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실습에 참여하지 않거나(21.0%), 실습 경험이 있더라도 연하재활치료 관찰 경험이 없거나(30.1%), 직접 적용해본 경험이 부족하다고(73.5%) 하였다. 연하장애 실습 경험이 부족한 이유는 작업치료 분야가 다양하나 실습 기관이 한정적이고 실습 기관에 따라서 연하재활치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거나 관찰 이외의 직접적인 교

육을 받지 못한 경우로 판단된다. 또한 방문하는 실습 기관에 따라서 아동, 성인, 노인, 정신건강질환, 직업 재활 등 그 대상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전체 연령군 및 질환군에 대한 적절한 실습 경험을 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연하장애 관련 교육 여부를 조사한 Jones와 Porterfield (2020)의 연구 결과 연하장애 교육을 학교(60.5%)와 실습(50%)에서 경험하였고, 실습 중 연하장애 대상자를 돌본 경험이 있었다(78.9%).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연하장애 대상자를 돌본 경험, 의료 분야에서의 과거 업무 경험, 연하장애 교육 여부가 연하장애 이해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작업치료학과 학생들 역시 졸업 전 실습을 통해 연하장애치료 경험 및 지식 증진을 위한 기회 제공은 필수적임을 유추할 수 있다. 실습은 앞으로 연하재활치료 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한 핵심적인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Cocks et al., 2014; Singh et al., 2015) 학생들에게 연하재활치료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실습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연하재활치료 지식 분석 결과 교육 경험과 마찬가지로 아동 관련 문항이 성인보다 낮았다. 연하재활치료 지식은 교육 경험보다 점수가 낮아 3점 이하의 보통에서 낮음으로 보고하였다. Singh 등(2015)은 연하재활치료 기초 과학(해부학, 생리학, 신경학, 병리학) 교육은 모든 학교에서 비교적 충분한 반면 아동 연하 평가 관련 이론은 3개 대학, 아동 연하재활치료는 2개 대학, 성인 연하재활치료는 3개 대학만 충분하다고 하였다. 또한 Cocks 등(2014)의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 역시 아동 연하재활치료 교육 참여 학생들에서 유의미한 이득이 없거나 지식 획득이 부족하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선행 연구에서도 아동 연하재활치료 지식 습득 기회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의 경우 임상에서 성인 관련 기관에 근무하며 연하재활치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삼킴 기능 유지와 증진을 목표로 하는 성인 연하재활치료와 달리 아동 연하재활치료는 발달, 경험, 감각, 구강 운동, 행동 등을

복합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아동 연하재활 치료 시행 기관 및 전문가가 상대적으로 적고 체계적인 교육 및 지식 습득 기회 부족을 유추해 볼 수 있겠다 (Seo et al., 2020).

본 연구에서는 학교와 실습에서의 교육 경험 및 지식은 모두 중간 이상의 상관을 보였으며, 아동 및 성인 연하재활치료 준비도와도 상관이 높아 적절한 교육 경험과 지식이 졸업 후 임상에서의 연하재활치료 준비 및 시행 정도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Singh 등 (2015)도 이론, 실습, 시행 준비도 인식 간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이론적 배경과 실습 기회 부족이 시행 준비도 저하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연하재활치료 준비도는 평가 및 증재와 관련된 이론 교육, 충분한 실습 경험, 기회, 적절한 사례 수와 연관이 있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실습 중 사례 관리 경험 여부가 신규 치료사의 연하재활치료 자신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 과정에서의 적절한 실습 교육 과정 제공은 중요하다 (Arena et al., 2007). 본 연구 결과는 작업치료 전문 분야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받았을 때 인식, 관심, 준비도 및 만족도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한 선행 연구들 (Go et al., 2021; Hong, 2018; Jung & Yoo, 2021)의 결과와도 유사하며, 이는 연하재활치료 분야 역시 적절한 학교 교육과 임상 현장에서의 실습 경험이 졸업 후 연하재활치료 전문가로 활동하는 데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연하재활치료 교육 인식도를 확인한 결과 실습 경험이 있는 군과 실습 경험이 없는 군 모두 실습의 필요성 항목이 가장 높아 작업치료 전공 학생들의 체계적인 연하재활치료 실습 요구가 다시 확인되었다. 반면 학교에서의 이론 수업에 대한 인식도 역시 보통 수준으로 학교에서의 연하재활치료 이론 수업과 실습 경험 모두 아직은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 인식도와 만족도 관련 대부분의 항목에서 실습 경험이 있는 군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아 적절한 연하재활치료 실습이 연하재활 분야에 대한 관심 및

인식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실습 과정을 통해서 추후 연하재활치료를 참여할 동기가 생기거나 전문성에 대한 인식, 치료를 위한 준비도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실습 과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간호학과 학부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 연구 (Jones & Porterfield, 2020)에서는 학부 간호 교육 과정에 연하장애가 포함되어야 하며 (3.72 ± 0.50), 연하장애 관리에 간호사 역할의 중요성 (3.80 ± 0.45)을 높게 보고하여, 각 전문 분야별로 연하재활치료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높게 생각하는 것은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간호 학부 과정에 연하장애 교육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지 않았으나 (2.24 ± 0.94), 교육 후 연하장애 관리에서 간호사로서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켰다고 하였다 (3.64 ± 0.57). 이는 연하재활치료 분야에서 다학제적 접근의 중요성과 각 분야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의 중요성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작업치료사 역시 학부에서부터 학교와 실습에서의 체계적인 교육과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식과 경험은 환자의 권리와 이익 보호 (advocate)를 하는 데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Jones & Porterfield, 2020).

연하재활치료 교육 및 치료에 관련된 대부분의 항목에서 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과 달리 아동과 성인의 연하재활치료 준비도에서는 두 군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원점수는 실습 경험이 있는 군이 높아서 실습 경험이 졸업 후 연하재활치료 준비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실습 경험이 없는 학생들의 점수와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은 점은 실습 경험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실습 경험이 있더라도 졸업 후 임상에서의 치료 시행은 별개로 학생들에게 어려운 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Singh 등 (2015)의 연구에서는 응답 학생의 상당수가 성인 연하재활치료 (49.3%), 아동 연하재활치료 (61.6%)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느껴 적절한 연하재활치

료 교육이 이루어지더라도 졸업생이 느끼기에 실행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였다. 특히 성인에 비해 아동 연하재활치료의 준비도가 낮은 본 연구 결과와도 유사한 결과였다. 그리고 선행 연구(Singh et al., 2015)에서는 아동 연하재활치료 준비도(11~88%)가 성인 연하재활치료 준비도(17~91%)에 비해 다소 낮았다. 이는 임상 학문인 작업치료 분야에서 이론 교육과 임상 실행의 차이를 발견하여 공백을 메꾸는 것이 중요하며 연하재활치료 전문가가 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연하장애 증상은 다양한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하재활치료 전문가는 생애주기에 따른 연하재활 평가 및 중재에 대한 이론과 임상 학습 경험이 필요하다(Singh et al., 2015). 따라서 학교와 임상 현장에서 모두 아동 연하재활치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본 연구와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하재활치료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과정에 대한 대안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첫째, 학부 또는 대학원 과정 등에서의 체계적인 연하재활치료 교육 과정 제공이다. 미국의 경우 언어병리학 대학원 수준의 연하재활치료 교육을 필수 부분으로 인식하고 그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Ball & Riquelme, 2016). 또한 대학에 따라서 전문 실습 영역, 연하재활치료 전문 교수진 등의 명성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강사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고 하여 경험 많은 강사의 전문적인 강의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Ball & Riquelme, 2016). 미국, 아일랜드, 뉴질랜드의 신규 졸업자들이 연하재활 분야에서의 자신감이 부족하고 자신의 연하재활치료 수준을 초보 수준으로 인식하여 감독을 받는 실습 과정의 요구도가 높은 만큼(Singh et al., 2015) 학교에서 이론 교육뿐 아니라 실습 교육 역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교에서의 교육 과정 개발 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으로 임상 전문가의 후진 양성에 대한 관심 및 임상 경험에 대한 체계적인 전달, 학교와 임상 기관의 협업을 통해 통합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Blumenthal 등(2001)은 집중적인 단기 훈련이 임상가 간 기술적인 측면에서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그 전에 일반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기본적인 준비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여 대학(원) 교육 과정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기본 교육에 대한 숙련도, 수행도, 준비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질적이고 통일된 학습 기회 제공 또한 필요하다(Singh et al., 2015). 이러한 평가 과정을 통해 대학에서의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이 차이가 있다면 기존 교육 과정 검토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Singh et al., 2015). 따라서 현장에서의 적절한 연하재활치료 제공을 위해 학교에서의 기본적이고 전문적인 근거 중심 연하재활치료 교육이 꼭 필요한 부분이며(Jones & Porterfield, 2020) 성인, 아동 연하재활치료 이론 및 실습 교육의 표준화된 과정과 그에 따른 국가고시 개발 역시 필요하다(Singh et al., 2015). 또한 실습 교육에 있어서 연하재활치료 지식을 다양한 사례와 집단에 일반화시키는 법, 시기, 시간 및 강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Cocks et al., 2014).

둘째는 추가적인 연하재활치료 전문 교육 과정 참여이다. 연하재활치료는 전문 작업치료 영역이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며 임상가들 역시 추가적인 교육에 참가하여 연하재활치료 시행을 위한 지식 습득과 기술 발전을 위한 노력 빈도가 높다(Singh et al., 2015). 집중적인 단기 훈련은 임상가들의 연하재활치료 기술 격차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이다(Blumenthal et al., 2001; Cocks et al., 2014; Singh et al., 2015). 영국의 경우 연하재활치료 심화 교육 방법으로 관련 교육 참가(29.7%)가 가장 많았으며(Egan et al., 2020), 미국 역시 지역사회 작업치료사의 20%가 구강운동 관련 심화 교육 참가를 원하고 있었다(Lemorie, 2000; Min et al., 2021). 영국에서 언어재활 전공 학생 대상으로 단기 연하재활치료 교육의 효과를 확인한 Cocks 등(2014)의 연구 결과, 교육 후 성인과 아동 연하재활치료 모두에서 경험, 인식, 지식, 임상 기술, 능숙함, 자신감, 연하장애에 대한 관심 영역의 향상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 및 성인 연하재활치료 준비도에서 실습 경험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본 연구와는 상반된다. 이는 선행 연구의 교육 과정이 학생이 아닌 졸업 후 임상에서의 추가 교육 과정으로 초보 치료사의 연하재활치료 지식 및 활용 능력 향상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한 결과로 학부에서의 기초 교육 과정을 기본으로 졸업 후 추가적인 연하재활치료 교육 과정 이수 등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연하장애치료는 연령에 따라 아동, 성인, 노인, 제공 기관에 따라서 병원, 지역사회 등 다양하기 때문에 치료 목표 역시 직접적, 보상적 중재, 교육, 다른 전문가 의뢰 등 다양할 수 있다(Egan et al., 2020; Min et al., 2021). 따라서 연하장애 전문 교육 과정 개발을 위해서는 연하재활치료의 목표, 중재 방법 등 임상에서 연하재활치료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임상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역시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연하재활치료는 다학문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만큼 관련 전문분야의 지식과 시행에 대한 이해가 추가된다면 보다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연하재활치료 시행을 위한 교육 과정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Cocks et al., 2014). 특히, 영국에서는 연하장애가 있는 클라이언트를 치료하기 전에 추가적인 사후 자격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으며, 환자들은 연하재활치료 전문가가 연하장애에 관련 대학원 교육 과정을 완료했거나 완료할 의사가 있어야 하여 위에 제시된 두 방법을 모두 충족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Cocks et al., 2014).

본 연구의 제한점은 국내 개설된 전체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모든 작업치료 개설 학교의 연하재활치료 교육 상황을 대표하지 못하는 것이다. 온라인 설문 특성상 대상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지역과 학교마다 균등한 응답자 수를 확보하기 어렵고 응답 지역을 고려하였을 때 특정 학교 학생의 참여가 높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문항 수에 비해서 통계적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결과를 분석하지 못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추가 연구에서는 학교별 조사, 전체 지역을 고려한 충분한 수의 대상자 확

보를 통해 통계적 의의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 결과, 실습에서의 연하재활치료 참여 여부, 성인과 아동 등 대상자에 따른 연하 연하재활치료 실습 경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하재활치료 실습 교육과 경험을 중심으로 한 조사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학교 및 임상에서의 교수, 치료사가 느끼는 연하재활치료 교육의 중요성 및 제한점에 대한 부분 확인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이를 근거로 한 문제 해결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연하재활치료 전문가로 역할을 할 예비 작업치료사인 작업치료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설문을 통해 연하재활치료 교육 실태, 지식, 인식도 및 준비도를 확인하고 교육 경험과 지식, 준비도 간 상관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하재활치료 실습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학교에서의 교육이 임상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임상 현장에서 작업치료사들의 체계적인 전달 교육 역시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연하재활치료 전문성 확보를 위한 관심이 요구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작업치료과 또는 작업치료학과에 재학 중인 졸업 년도 학생 105명을 대상으로 연하재활치료 교육 경험, 지식, 인식도 및 준비도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학교 및 실습에서의 연하재활치료 교육 경험과 지식은 보통 수준이었다. 학교에서의 교육 경험이 실습을 통한 교육 경험보다 높았으며, 성인 연하재활치료에 비해 아동 연하재활치료에 대한 교육 경험 및 지식은 낮았다. 연하재활치료는 작업치료의 전문 분야로 학교에서 독립적인 연하재활치료 교과목의 필요성 등의 인식이 높았으나, 아동 연하재활치료 준비도는 부족하다고 응답하여 학교와 실습 환경에서 적절한 수준의 교육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

하재활치료 이론 및 실습 교육은 졸업 후 신규 작업치료사들에게 연하재활치료 서비스의 전문성과 자신감을 제공하며 추후 연하재활치료 전문가가 되기 위한 개별적인 질 향상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동기를 제공하는 주요한 과정이다. 따라서 연하장애 대상자들에게 보다 질적인 연하재활치료 제공을 위해 학교에서 통일되고 체계적으로 연하재활치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하재활치료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학교에서의 전문적인 이론 교육, 그에 따른 풍부한 실습 경험, 졸업 후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임상 전문 교육 등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교육 방법이 필요하며 학교에서의 전문 연하재활치료 교육이 그 시작이 되어야 할 것이다.

Conflicts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Acknowledgements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 초안의 검토, 자문에 기여해주신 원광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우희순 교수, 경운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곽호성 교수께 감사드립니다.

본 논문은 대한연하재활학회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된 연구입니다.

References

- Affoo, R. H., Bruner, J. L., Dietsch, A. M., Nellenbach, C. E., Jones, T. M., & Lehman, M. E. (2020). The impact of active learning in a speech-language pathology swallowing and dysphagia course. *Teaching and Learning in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4(2), Article 4. <https://doi.org/10.30707/TLCSD4.2/POPG6689>
- Arena, G., Kruger, E., Holley, D., Millar, S., & Tennant, M. (2007). Western Australian dental graduates' perception of preparedness to practice: A five-year follow-up. *Journal of Dental Education*, 71(9), 1217-1222. <https://doi.org/10.1002/j.0022-0337.2007.71.9.tb04387.x>
- Arvedson, J. C. (2013). Feeding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and swallowing difficulties. *Europe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67(Suppl 2), S9-S12. <https://doi.org/10.1038/ejcn.2013.224>
- Ball, K. A., & Riquelme, L. F. (2016). The graduate dysphagia course: Opening the door to new frontiers. *Perspectives of the ASHA Special Interest Groups*, 1(13), 104-112. <https://doi.org/10.1044/persp1.SIG13.104>
- Blumenthal, D., Gokhale, M., Campbell, E. G., & Weissman, J. S. (2001). Preparedness for clinical practice: Reports of graduating residents at academic health centers.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86(9), 1027-1034. <https://doi.org/10.1001/jama.286.9.1027>
- Cha, Y. J., & Jeon, B. J. (2012). Job characteristics and factors affecting work orient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who take CBR based on the regional public health act: Focusing on public health centers and centers for dementia.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20(3), 41-53.
- Cocks, N., Harding, C., & Pritchard, M. (2014). The benefits of a 5-day dysphagia intensive place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Speech-Language Pathology*, 16(5), 476-485. <https://doi.org/10.3109/17549507.2013.826283>
- Egan, A., Andrews, C., & Lowit, A. (2020). Dysphagia and mealtime difficulties in dementia: Speech and language therapists' practices and perspectives. *International Journal of Language & Communication Disorders*, 55(5), 777-792. <https://doi.org/10.1111/1460-6984.12563>
- Go, Y. J., Kim, H. E., Song, Y. M., Choi, E. Y., & Kim, H. (2021). The effect of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awareness and education satisfaction in psychiatric field on career identity.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Mental Health in Occupational Therapy*, 8(1), 1-16.
-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2017). *Health Insurance Act benefit · non-benefit list table and benefit relative value score, partly revision*. <https://www.hira.or.kr/co/search.do?query=%EA%B1%B4%EA%B0%95%EB%B3%B4%ED%97%98+%ED%96%89%EC%9C%84+%EA%B8%89%EC%97%AC+%E2%80%A4%E>

B%B9%84%EA%B8%89%EC%97%AC+%EB%AA%A9%EB%A1%9D%ED%91%9C+%EB%B0%8F+%EA%B8%89%EC%97%AC+%EC%83%81%EB%8C%80%EA%B0%80%EC%B9%98%EC%A0%90%EC%88%98

- Hong, S. Y. (2018). The survey on the awareness, interest and need of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for the dementia care center.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mmunity Based Occupational Therapy*, 8(3), 37-47. <https://doi.org/10.18598/kcbot.2018.8.3.04>
- Jones, C. L. C., & Porterfield, S. (2020). Nursing students' knowledge of the nurse's role in the management of dysphagia. *Rehabilitation Nursing*, 45(5), 299-307. <https://doi.org/10.1097/rnj.0000000000000213>
- Jung, H. Y., & Yoo, C. U. (2021).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dementia attitude and dementia knowledge according to the level of dementia education of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for the Aged and Dementia*, 15(1), 75-82. <https://doi.org/10.34263/jsotad.2021.15.1.75>
- Lemorie, L. A. M. (2000). *Professional expertise of community-based occupational therapists* (Master's thesis). Western Michigan University.
- Min, K. C., Kim, E. H., & Woo, H. S. (2021). Survey on the status of community based dysphagia rehabilitation for occupational therapists in public health centers: Focus on awareness, participation, and education. *Korea Journal of Geriatric Occupational Therapy*, 3(1), 45-59.
- Min, K. C., & Woo, H. S. (2020). Job characteristics and status of community occupational therapist: Focus on OTs in public health center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mmunity Based Occupational Therapy*, 10(3), 37-52. <https://doi.org/10.18598/kcbot.2020.10.3.04>
- Seo, S. M., Song, Y. J., & Woo, H. S. (2020). Study on the status of dysphagia rehabilitation. *Journal of the Korean Dysphagia Society*, 10(1), 47-55. <https://doi.org/10.34160/jkds.2020.10.1.006>
- Singh, S., Booth, A., Choto, F., Gotlieb, J., Robertson, R., Morris, G., Stockley, N., & Mauff, K. (2015). New graduates' perceptions of preparedness to provide speech-language therapy services in general and dysphagia services in particular. *The South Afric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62(1), E1-E8. <https://doi.org/10.4102/sajcd.v62i1.110>

Abstract

Research for Education Status, Knowledge and Awareness of Dysphagia Therapy Among Occupational Therapy University Students

Min, Kyoung-chul*, Ph.D., O.T., Seo, Sang-min**, Ph.D., O.T.

*Dept. of Rehabilitation Medicine, Seoul Metropolitan Children's Hospital, Occupational Therapis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Semyung University, Professor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ducational status, knowledge, awareness, and readiness for dysphagia therapy among university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Methods : One hundred and five online questionnaires completed by senior-year students at an occupational therapy university were analyzed. The questionnaire assessed the educational status, knowledge, awareness, and readiness for dysphagia therapy. Descriptive statistics and differences between those with and without practical experience were analyzed. The relationships among educational status, knowledge, and readiness were analyzed.

Results : Independent opening of the dysphagia therapy class (69.5%) and experience in dysphagia practice were high (79.0%). Dysphagia education and knowledge in university and practice were moderate and item scores were higher for university education. Knowledge of adult dysphagia therapy was higher than that of pediatric dysphagia therapy. Scores on awareness, knowledge, and readiness for dysphagia therapy were significantly higher among students with practical experience.

Conclusion : Education and knowledge of dysphagia therapy were moderate. Knowledge and readiness in adults are higher than in children. Systematic dysphagia therapy education in university and associated practices are needed to enhance the specialty of dysphagia therapy.

Keywords : Awareness research, Dysphagia, Dysphagia education, Education status,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